

INTERIOR

인테리어 디자인 JANUARY, 2008

Decor

World Best Design Exchange in Seoul 2007

Cultural Place
Doerte Gatermann, Elmar Schossig
Daniel Libeskind
Louise Campbell
동부건설 디자인팀
GS건설 밤섬 자이

New Year's Trend Keywords in Interior





단순하지만 결코 단조롭지 않은 디자인의 건축물

An Open House to the Forest

HOUSE B

취재 / 장선아

HOUSE B는 숲과 주거지역 사이, 몇몇의 주택만이 자리하고 있는 그림 같은 풍경을 지닌 곳에 위치한다. 사실 클라이언트는 주변이 막히지 않은 개방된 공간을 찾고 있었지만 숲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자라온 소나무와 자작나무들이 연출하는 멋스러운 풍경에 매료되어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건축물은 하늘 위로 곧게 뻗은 나무들을 최대한 보존하고 집안에서도 외부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Architect / Ingarden & Ewý Architekci
 (+48 12 632 80 10)
 Structure / Roman Zimka Poland
 Location / Warsaw, Poland
 Living Space / 200m²





기다란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해질녘의 건축물은 벽면에 걸린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단순한 사각 형태에서 일부분을 돌출시켜 입체감을 더했다.

건물은 빼어난 자연환경에 둘러 쌓여있지만 일반적인 숲 속의 소박한 오두막과는 달리 현대적인 멋스러움을 자랑한다. 단순한 사각 형태에서 일부분을 돌출되게 계획하여 입체감 있는 공간설계를 보여 주고, 치밀하게 계획된 다양한 형태의 창을 통해 최대한 자연을 공간 내부로 끌어들이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도 만족시킨다. 또한 블랙프레임의 창을 통해 보이는 해질녘의 내부 모습은 화이트 벽면에 걸려있는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이와 같이 건축물의 외관은 단순하면서도 단조롭지 않은 매력을 지니는데 특히 건물 외관의 끝을 살짝 구부려 생성된 벤치에서는 작은 부분하나도 놓치지 않는 건축가의 재치를 만나볼 수 있다. 이처럼 모던한 건축물과 흐름을 같이하는 벤치 디자인은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제공하는데 곳곳에 마련된 우드테라스 위의 화이트 벤치는 정돈된 아름다움을 전하며 더불어 잘 다듬어진 잔디와 회색빛 돌맹이들을 규칙적으로 배열해 만든 징검다리가 있는 정원은 현대적인 건축물과 내추럴한 자연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 결과 자연환경과 대조를 이루는 현대적인 건축물은 본연의 세련됨을 유지하며 자연의 청량함과 깔끔하게 어우러진다.







건물 외관의 끝을 살짝 구부려 생성된 벤치에서 건축가의 재치가 느껴진다.



잘 다듬어진 잔디와 화석빛 징검다리에서 내추럴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외관과 마찬가지로 화이트로 마감된 내부에서 자연채광과 외부의 풍경은 공간에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창을 통해 보이는 그린 빛깔은 극도의 미니멀함으로 단조로워지기 쉬운 공간에 싱그러운 포인트로 작용하며 이는 세련된 분위기와 동시에 자연으로 유입되는 듯한 느낌을 부여한다. 또한 건축가의 세심한 창 배치로 인해 화이트의 벽면은 햇살이 만들어낸 천연의 작품으로 꾸며지기도 한다. 그 중 천장이 2층까지 연결된 거실에서는 전면창을 통해 키다리 나무들의 모습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으며 천장의 일부가 창으로 마감되어 낮에는 실내를 더욱 밝게 연출하고 밤에는 별빛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연한 베이지 컬러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바닥은 조금씩 다른 컬러와 결을 지닌 나무들이 좁은 폭과 길이로 적용되어 잔잔한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또한 동일한 형태의 계단이 반복되어 완성된 계단부의 일부를 공중에 부유하는 듯한 느낌으로 디자인하여 미니멀한 분위기를 더욱 감각적으로 완성했다. 더불어 1층을 내려다볼 수 있는 2층에서는 개방된 유리파티션을 사용하여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간 안으로 좀 더 많은 햇살을 비출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유리 파티션을 활용해 개방감을 부여했다.



현대적인 모던한 감성과 자연의 내추럴한 감성이 하나의 공간에서 함께 소통한다.



공간의 차가운 이미지를 완화시켜주는 간접조명.

천장이 2층까지 연결된 거실에서는 키다리 나무들의 모습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다.



화이트 벽면은 햇살이 만들어내는 천연 작품으로 꾸며지기도 한다.



햇살을 가득 머금은 욕실.



컬러와 결이 조금씩 다른 우드 플로링이 찬찬한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한편 휴식이 주목적인 주거공간의 특성상 지나친 화이트의 사용은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한데 건축가는 이를 위해 공간에 은은한 간접조명과 함께 강렬한 컬러를 지닌 회화작품을 배치하여 마치 갤러리에 온 듯 예술적인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화이트라는 컬러와 단순한 형태 그리고 적재적소에 배치된 창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바라던 정원과 숲을 향해 최대한 개방되어 있는 집, 자연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주거공간으로 완성된 HOUSE B. 이렇듯 하나의 공간에서 함께 소통하는 현대적인 감성과 내추럴한 감성은 시시각각 변하는 계절과 적절하게 어우러진다. □